

최연소 출전·득점... 유로 역사 새로 쓴 16살

스페인 빈민가 출신 '야말'
프랑스와 4강전서 동점골
팀 결승 진출에 일등공신

메시 스무살 때 '목욕 축복'
'제2의 메시'로 스타 예약

'축구의 신' 리오넬 메시(37-아르헨티나)가 17년 전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FC 바르셀로나에서 활약할 당시 '목욕 축복'을 내린 것만 아끼 라민 야말이 유럽축구선수권 대회 최연소 득점으로 새 역사를 썼다. 2007년 가을 바르셀로나 캄노우의 원정 팀 라커룸에서 20세 메시가 야말을 목욕시키는 사진이 최근 공개된 큰 화제를 모았다.



바르셀로나에서 가장 빈곤한 마을로 꼽히는 로카폰다에서 태어나고 자란 야말은 축구선수의 꿈을 키웠다. 이웃이 대부분 노동자들이었다고 한다. 아버지는 모로코인, 어머니는 적도 기니 출신이라 삼중 국적자다. 아버지의 나라 모로코도 야말을 대표팀에 합류시키려 한 적이 있었지만 야말은 이미 스페인을 선택한 뒤였다.

야말은 7세 때 로카폰다 콘크리트 바닥에서 축구를 하던 모습이 바르셀로나 직원에게 포착되면서 인생이 바뀌었다. 곧바로 바르셀로나 유스팀에 입단했고, 지난해 바르셀로나에서 라리가 최연소 데뷔 기록을 세웠다. 어릴적부터 유명했지만 고향을 잊지 않는다.

야말은 골을 넣으면 오른손가락 세개와 왼손가락 네개를 펼친다. 야말의 전매특허 '304' 세리머니다. 로카폰다의 우편번호 '08304'를 의미하는 것이다. 로카폰다에서 태어난 자신의 정체성을 잊지 않겠다는 뜻이다. 왼발잡이인 야말이 바르셀로나에서 뛰어난 재능을 뽐낸 덕분에 '제2의 메시'라 불리기도 한다.

메시 이후최고의 재능을 갖췄다고 평가받는 2007년생 야말은 라리가 데뷔 이후 리그 최연소 데뷔·선발 출전·득점 등 각종 기록을 썼다. '무적함대' 스페인 축구대표



스페인 축구대표팀의 공격수 라민 야말이 10일(한국시간) 유로2024 프랑스와의 4강전에서 동점골을 터뜨린 뒤 그라운드를 질주하며 골세리머니를 연출하고 있다. AP=연합뉴스

2024에 스페인 대표팀으로 나서 대회 역대 최연소 출전, 최연소 공격포인트 기록을 갈아 치우며 이어 최연소 골까지 성공시켰다.

야말은 10일(한국시간) 독일 뮌헨의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열린 프랑스와의 유로 2024 4강전에서 동점골을 터뜨려 팀을 결승에 올리는 데 일등공신이 됐다.

선발 출장한 야말은 전반 21분 중거리포로 골망을 흔들면서 유로 대회에서 역대 최연소(16세 362일) 득점자가 됐다. 2004년 유로대회 때 스위스의 요한 볼란텐가 세운 최연소 기록(18세 141일)을 1년 4개월 이상 앞당겼다.

야말은 13일 만 17세 생일을 맞는다. 그가 15일 예정된 결승전에서 챔피언 트로피를 들어 올릴 수 있을지 관심을 끈다. 스페인은 네덜란드-잉글랜드의 4강전(11일) 승자와 우승컵을 다툰다.

스페인인 이날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2위인 프랑스에 2-1 역전승을 거두고 결승에 진출했다. 1964년과 2008년, 2012년 유로 우승팀 스페인은 4번째 트로피를 눈앞에 뒀다.

스페인인 8강전에서 개최국 독일을 제압했고, 이날 프랑스마저 파들리면서 통산 4회 우승을 향해 탄력을 불었다. 스페인은 조별리그 3경기과 16강·8강·4강전까지 6연승을 달렸다.

스페인인 이날 전반 8분 프랑스의 란달 콜로 무아니에게 선제골을 내줬지만 전반 21분 야말의 중거리포 동점골과 4분 뒤 다니 올모의 결승골로 역전승을 일궈냈다.

야말은 베테랑 골잡이 알바로 모라타의 패스를 받은 뒤 아크 뒤편에서 왼발 감아차기 슈트로 골대 왼쪽 구석을 뚫으며 분위기를 반전시켰다. 올모 역시 3경기 연속 골로 포효했다.

이후 양 팀은 치열한 허리 싸움을 펼치며 추가 골 기회를 엿봤으나 득점으로 연결되지는 않았다. 프랑스는 후반 18분 코너킴 상황에서 우스만 덴벨레가 문전으로 올린 공을 라요 우파메카노가 헤더로 연결했으나 크로스바를 넘겨 득점 기회를 날렸다. 1984년과 2000년에 이어 3번째 유로 우승에 도전한 프랑스는 이번 대회 6경기 만에 고대하던 필드 골이 터졌으나 역전을 허용하며 짐을 썼다.

박병현 기자 bhpark@skyedaily.com

남 단식 1위 신네르, 임블던 8강 탈락

남자프로테니스(ATP) 단식 세계 1위 안니크 신네르(이탈리아)가 임블던 테니스 대회(총상금 5000만 파운드·약 875억원) 8강에서 탈락했다.



남자 테니스 단식 세계 1위인 안니크 신네르가 10일(한국시간) 임블던 테니스 대회 단식 8강전에서 패한 뒤 침뚫한 표정으로 인터뷰를 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신네르는 10일(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올잉글랜드 클럽에서 열린 대회 남자 단식 준준결승에서 다닐 메드베데프(5위·러시아)에게 2-3(7-6(9-7) 4-6 6-7(4-7) 6-2 3-6)으로 패했다. 올해 호주오픈에서 우승한 신네르는 이어 열린 메이저 대회인 프랑스오픈과 임블던에서는 각각 4강과 8강에서 대회를 마무리했다.

다만 신네르는 이번 대회 결과와 관계없이 세계 1위 자리는 계속 지킬 수 있다. 신네르는 3세트 도중 메디컬 타임아웃을 부르고 잠시 코트를 떠났다가 돌아오는 등 컨디션 난조에 시달렸다.

신네르는 올해 호주오픈 결승에서 메드베데프에 3-2(3-6 3-6 6-4 6-4 6-3) 역전승을 거두는 등 최근 맞대결에서 5연승을 거뒀으나 이날은 반대로 2-3 패배를 당했다. 둘의 상대 전적은 메드베데프가 7승 5패로 앞서있다.

임블던에서 남녀 단식 세계 랭킹 1위가 모두 4강에 들지 못한 것은 2018년 이후 6년 만이다. 여자 단식 세계 1위인 시비우테크(폴란드)는 올해 임블던 3회전에서 탈락했다.

메드베데프의 준결승 상대는 지난해 임블던 챔피언 카를로스 알카라스(3위·스페인)다. 알카라스는 토미 폴(13위·미국)을 3-1(5-7 6-4 6-2 6-2)로 꺾고 대회 2연패를 향해 순항했다. 둘은 지난해에도 임블던 4강에서 만났는데 알카라스가 3-0(6-3 6-3 6-3)으로 완승했다. 스키아데일리·연합뉴스

"시원하게 샷~" 군산CC오픈 반바지 첫 허용

한국프로골프협회(KPGA)는 11일 전북 군산에서 개막하는 군산CC오픈에 선수들의 반바지 착용을 허용한 다고 10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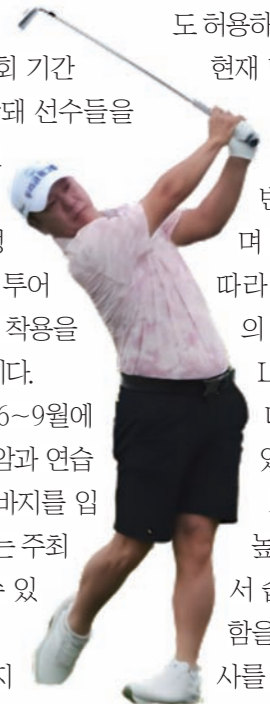
대회 조직위원회는 "대회 기간 습도 높은 무더위가 예상돼 선수들을 위한 배려 차원에서 이번 대회에 한해 경기 중 반바지를 입을 수 있게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KPGA 투어 대회에서 선수들의 반바지 착용을 허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KPGA 투어 규정에는 6~9월에 열리는 대회에 한해 프로암과 연습라운드에서 선수들이 반바지를 입을 수 있으며 대회 기간에는 주최측과 논의한 뒤 허용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안으로 넣어 입어야 하고, 무릎 기준 위, 아래로 10cm 이상 길거나 짧은 바지는 입을 수 없다. 트레이닝복 형태 반바지도 허용하지 않는다.

현재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와 일본프로골프 투어(JGTO)는 프로암과 연습 라운드에만 반바지 착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DP 월드투어는 기상 상황에 따라 대회마다 조건부로 선수들의 반바지 착용을 허용한다. 또 LIV 골프와 아시안투어는 본 대회에서도 반바지를 입을 수 있다.

조민규는 "이번주는 기온이 높고, 특히 대회장이 매립되어서 습도까지 높다. 선수들의 편안함을 우선한 결정"이라고 찬성의사를 밝혔다. 스키아데일리·연합뉴스



RomaRo
GRAND QUALITY

Confidence in the Short game.

Alcobaça
ASA WEDGE LADY

www.romarogolf.co.kr